

정보통신분야의 국제 표준화 협의체 - GSC, RAST를 중심으로 -

정보통신 연구개발본부 기술정책센터 국제표준팀

김성철 선임연구원(국제표준, 국제표준개발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중훈 선임연구원

차철호 선임연구원

본 고에서는 ITU의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주도적 지역 표준화기구들이 참여하여 주요 표준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ITU의 공식적 표준화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식 협의체인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와 RAST(Radio Standardization)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 서론

정보통신분야의 대표적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는 1865년 국제전기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으로 창설된 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혁신 환경속에서도 국제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여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으며, 현재도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통신사업자들은 자체의 개발 기술을 ITU의 표준화 활동에 반영시키고 이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표준화기구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와 RAST(Radio Standardization)는 국제 표준화 무대

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지역 표준화기구들이 참여하고 있고, 주요의제에 대한 사전 의견교환 및 협력을 통해 ITU의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표준화 정상회의(Standards Summit)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들 비공식 협의체를 통한 표준화 활동은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도 양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GSC 및 RAST의 ITU 공식조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GSC는 ITU-T의 활동과 그리고 RAST는 ITU-R의 활동과 관련된 협의체로 두 협의체가 ITU의 공식조직과 무관하게 구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각기 ITU-T와 ITU-R에서의 표준화 활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ITU-T와 ITU-R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표준화기구들이 구성된 비공식 표준화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TU의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비공식 협의체인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와 RAST(Radio Standardization)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 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주도적 지역참여표준화기구(PSO)의 비공식 협의체인 GSC에 대해 그 설립목적, 참여기구, 성립과정, ITU-T 및 TSAG과의 관계, 개최연혁, 주요의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GSC의 구성 목적 및 설립연혁

ITU의 표준화 활동이 기술적, 사업적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 및 시장의 요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ITU에 참여하고 있는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역표준화기구들은 협력 및 사전의견조율을 통하여 국제 표준의 제·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한 비공식 협의체의 구성이 제안·추진되었고 현

재 GSC에는 8개의 주요 표준화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GSC가 설립되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그 태동은 1988년 CCITT 멜버른 Plenary Assembly에서 채택한 Resolution 17(Spirit of Melbourn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결의는 크게 표준화기구 ITU(당시는 CCITT, CCIR)의 근대화, 조직의 유연화, 효율화, 협동강화 등 4개의 주요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표준화 활동을 좀더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화 활동을 좀더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T1의 의장이었던 Ivor N. Knight가 지역 표준화기구의 합동회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TTC, ETSI, CCITT, CCIR 등이 동의하여 ITSC (Interregional Telecommunication Standards Conference)와 Ad Hoc 그룹 미팅인 GSMM (Global Standards Making Management) 그리고 이 기구에 참여하는 지역 표준화기구간의 표준화 문서교환 및 의견교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EDH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미국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부르크(Fredericksburg)에서 개최된 1차 ITSC 회의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각 표준화기구의 위상을 명확히 재정의하였으며,²⁾ 이들 중 RSO(Regional)와 NSO(National)는 그 기

1) GSC에 참여하고 있는 8개 PSO는 다음과 같다.(*: 설립주도기구)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기구: CCITT, CCIR)

ATSC: 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PSO: 호주)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PSO: 유럽)

T1*: Standards Committee T1 (PSO: 미국)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PSO: 미국)

TSACC: Telecommunication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PSO: 캐나다)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PSO: 한국)

TTC*: Th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PSO: 일본)

2) RSO로 통칭되던 참여 표준화기구를 GSO(Global Standards Organization)과 RSO(Regional Standards Organization) 그리고 NSO(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셋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였고, 92년부터는 3차 ITSC부터는 위 모두를 지칭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로 PSO(Participating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를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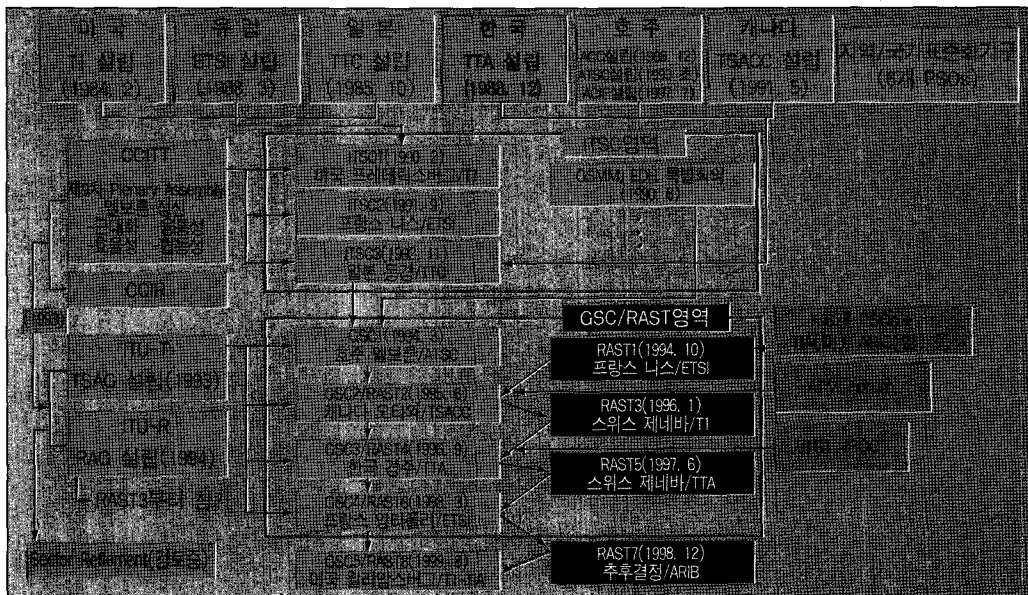
능상, 상향으로는 국제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활동에 기여하고 하향으로는 지역 및 국가의 표준을 제정·보급한다는 양방적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공식 협의체인 ITSC에 참여한 지역 표준화기구들은 기본적으로 공식기구인 ITU의 우월적 위상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표준화분야에서의 상호 협력활동을 지속시키기로 결의하였다. 협력분야에 있어서는 주요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였고, 이에 따라 B-ISDN, TMN, IN, UPT, AVS, ISDN 등 6개 주요과제 선정하여 우선 협력분야로 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의견교환 및 협력의 기반으로 EDH(Electronic Document Handling)을 개발키로 합의함으로써 비공식 협의체인 ITSC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 91년 니스(Nice)에서 2차 ITSC 회의가 개최되어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IN, UPT, TMN 분야에서 집중 협력키로 결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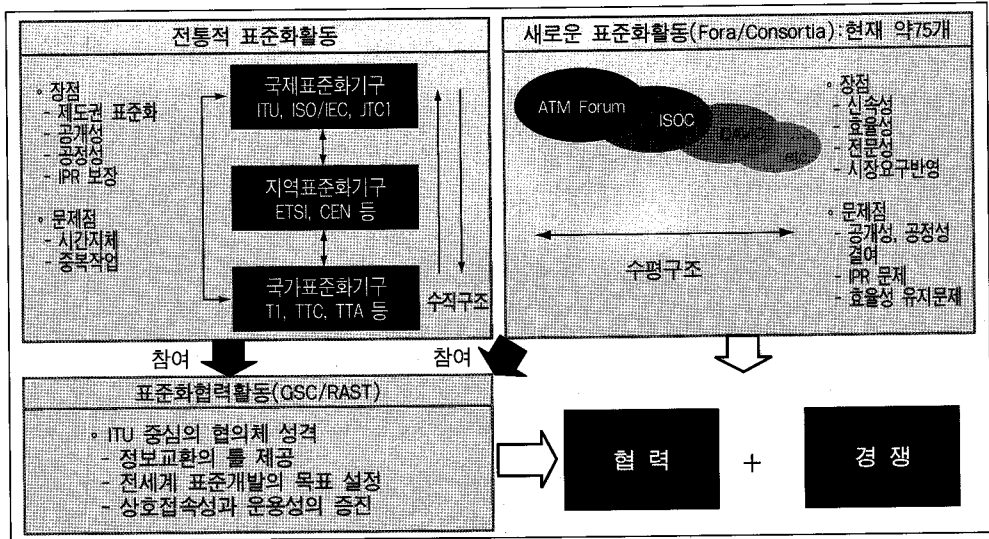
였으며, 이어 3차 ITSC 회의가 92년 동경에서 개최된다. 3차 동경 ITSC부터는 참여표준화기구(PSO)를 확대하여 TTA, ATSC, TSACC 등 3개 기구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승인하는 한편, 핵심 관심주제로 B-ISDN, IN, TMN, UPT, 그리고 SDH-SONET의 다섯 주제를 선정하였다. 3차 동경 ITSC에서의 가장 주된 결정내용은 표준화 활동의 신속화시키기 위해 ITSC의 조직 및 기능을 정비한 것으로 CCITT와 CCIR의 개편과 관련하여 그 명칭을 GSC로 개칭하고 GSC 1차 회의를 1994년 멜버른에서 개최키로 결의함으로써 세차례의 ITSC회의 이후 GSC가 탄생케 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8년 그 설립의 필요성이 처음 주창된 후, 수차례의 회의 진행과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GSC와 RAST의 성립과정을 조직구조 및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도표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³⁾(그림 1 참조)



(그림 1) GSC/RAST의 설립과정 및 협력흐름도

3) 장명국. "세계 정보통신표준협력활동(GAS/RAST)의 최근동향 및 향후전망," 제 1회 정보·통신 표준화 심포지움, 1998.



(그림 2) 표준화활동의 변화와 GSC/RAST의 기능

이러한 변천을 겪은 후 현재의 기능과 구성을 갖추게된 GSC와 RAST는 오늘날의 표준화 활동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협력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데 즉, 기존의 공식기구인 ITU의 공정성과 공개성을 살리면서 신속한 표준화활동을 위해 등장한 민간기구들인 각종의 포럼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접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최근의 표준화 활동의 변모와 GSC/RAST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참조)

2. GSC와 TSAG과의 관계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립된 GSC는 기본적으로 ITU-T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한편으로 ITU의 조직 개편과정에서 유사한 목적을 지닌 ITU-T내의 공식조직인 TSAG(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이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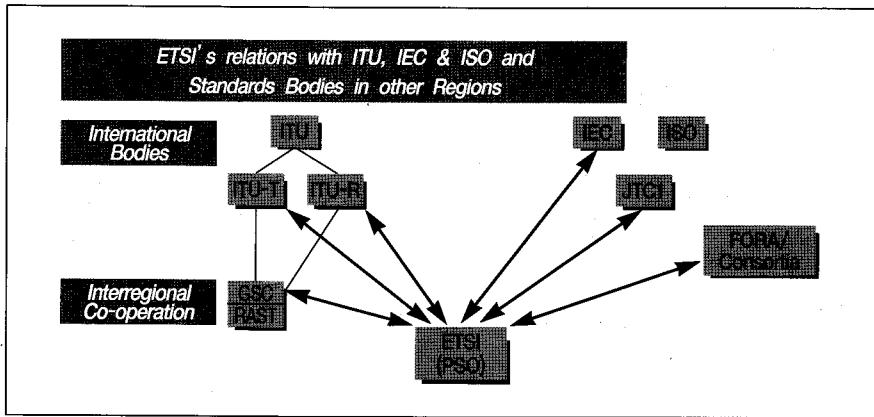
양 조직간 기능상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라 양 조직간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중요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GSC와 TSAG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우선 참여 표준화기구(PSO)의 하나인 ETSI가 비공식 협의체(GSC 및 RAST)와 ITU의 공식 기구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간명히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 참조)

즉 GSC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 표준화기구(PSO ; 그림에서는 ETSI)는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ITU 이외의 표준화기구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ITU와 관련하여 좌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는 ITU-T 및 ITU-R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ITU-T 및 ITU-R의 활동과정에서의 비공식 협의체인 GSC 및 RAST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각각의 참여 PSO의 입장에서 GSC의 특징을 TSAG과의 상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첫째, GSC는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점이



(그림 3) PSO의 GSC 및 ITU와의 관계 개념도

다. GSC는 상설 사무국 조직이 없으며 매번 회의를 주관하는 PSO가 사무국의 역할을 잠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하는 표준화기구(PSO)들은 유연한 연결구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둘째, 주요 표준화기구의 의견교환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논의 내용이 표준화의 세부내용 및 구체안의 결정이라기 보다는 표준화의 전반적인 방향성 정립과 협력방안에 대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 셋째, 공식적 조직인 TSAG은 ITU-T에 참여하는 모든 기구에 번호가 개방되어 있는 것에 비해, GSC는 주도적인 지역 표준화기구들의 모임으로서 그 참가자들 또한 참여 표준화기구의 대표 및 의장 수준이며 이 회의를 통해 주요 표준화과제에 대한 사전조정이 이루어지고 상호협력 방안이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결정되어 앞으로 ITU의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GSC 참여 표준화기구들은 GSC나 혹은 그 전신인 ITSC의 최초 설립목적이

ITU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표준화기구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시켜 ITU-T의 표준화 과정에 공헌코자 함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U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TSAG의 계획에 준거 GSC의 활동방향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토대에서 ITU-T와 관련한 GSC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규격안의 확정보다는 방향성의 정립 및 제시를 목표로 하여 특정 표준안에 대한 참여 PSO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GSC를 TSAG의 공식 조직으로 편입시키거나 GSC에서의 논의내용을 ITU-T의 결정과정에 직접 반영키 위한 무리한 영향력의 행사를 지양함으로써 TSAG과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한편, TSAG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TSB의장을 GSC회의에 참여시키고 있다.

3. GSC의 개최 연혁 및 주요의제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약 1년 반 간격으로 개최되어온 GSC 회의의 개최 연혁과 주요의제 및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4차례의 GSC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개최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차 GSC 멜버른 회의(94. 3)
- 2차 GSC 오타와 회의(95. 6)
- 3차 GSC 경주 회의(96. 9)
- 4차 GSC 앙티폴리 회의(98. 3)

GSC회의에서의 주요의제 및 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협력분야의 선정: 참여 표준화기구간에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어떠한 분야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한다.
- 2) 핵심 관심주제(HIS: High Interest Subjects)의 검토 및 승인: 선정된 협력 분야 가운데 어떠한 주제가 집중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고 특히 중요한 핵심 관심주제 다섯 가지 정도에서는 참여 표준화기구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를 결정한다.
- 3) 협력활동의 보고, 평가 및 필요권고 제시: 매 GSC 개최시에 이전 회의 이후에 추진된 각 PSO들의 협력활동을 핵심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보고하고, 각 PSO별 표준화 활동성과를 정리보고함으로써 주요 표준화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4) EDH와 HIS를 포함한 협력절차의 관리: 효율적인 정보교환의 기반구조로서 전자적 문서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된 협력 활동절차에 관해 논의한다.
- 5) GSC 활동 결과의 반영을 위한 ITU 관

계증진 및 지원: ITU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GSC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ITU에서 반영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4. GSC 4차 회의의 주요 결과

본 절에서는 가장 최근인 98년 3월에 개최되었던 GSC 4차 회의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기고문 분석

4차 GSC회의에서 발표된 기고문의 수는 총 51편으로서 앞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GSC 회의의 운영 및 협력방안(12편)과 3차 회의 이후에 각 PSO들의 주요 표준화 활동성과(13편)를 정리보고 하는 개괄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고문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보면 GII(5편)와 IMT-2000 등 무선 관련(7편)이 현재의 주요 관심분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PSO별 추진사항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고문 두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캐나다의 TSACC에서 발표한 'Standards-based configurations for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SC4(98)04'로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현과 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각 구현방안을 도식화하고,⁴⁾ 다시 각 구현방안별로 적용가능한 현재까지 개발된 각 PSO들의 표준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각 PSO가 제안된 특정 방안으로

4) 제안된 GII 구현 시나리오는 다음의 7개이다.

Scenario 1 Basic PSTN/ISDN

Scenario 3 Intelligent Network Access

Scenario 5 Basic Broadband Scenario

Scenario 7 ADSL

Scenario 2 PSTN/ISDN Access Network

Scenario 4 Interconnection of Signalling Ne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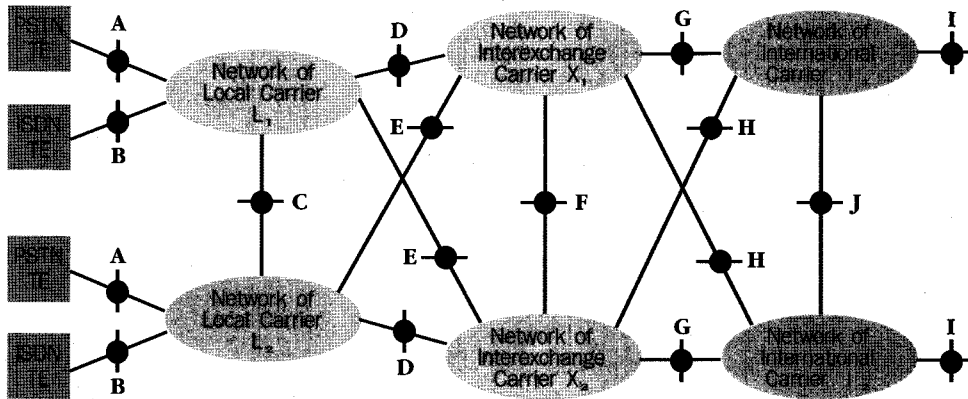
Scenario 6 Broadband Access Network



GII를 구현하기로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표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각 지역의 사업자들이 해당지역의 관련 표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을 관리할 것을 새로운 협력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안된 시나리오 1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으며 이 시나리오에서 적용가능한 PSO별 표준을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지적재산권 관리분야에 있어서의 Patent Map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해당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현재까지 개발된 표준의 일목요연한 파악을 가능하게 해주며 또한 특정 기술의 개발 및 구현과정에 있어 개발이 필요한 표준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사료되어 상당히 신선한 접근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관심을 끄는 다른 기고문은 T1에서 기고한 'Lead PSO(LPSO) : GSC(98)15'로서 표준화 활동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GSC에서 선정한 HIS의 각 분야별로 표준화



(그림 4) GII 구현방안 중 PSTN/ISDN 시나리오

<표 1> 시나리오 1에 적용가능한 각 PSO별 표준목록

Interface	Applicable Standard(s)			Comments
	ITU	T1/TIA	ETSI	
A		T1.401	ETS 300 001	Analog access interface
B	U:I.231.1 I.231.3 S:Q.930/931 Q.920/921 I.430	U:T1.605 T1.605 S:T1.607 T1.602 T1.601	U:ETS 300 108 ETS 300 110 S:ETS 300 102 ETS 300 125 ETS 300 012/011	ISDN access interface
C-H, J	S:Q.761-764 Q.701-704	S:T.113 T.111	S:ETS 300 121 ETS 300 008	National interexchange interfaces
I	S:Q.767 S:Q.761-764 S:Q.701-704	NA	S:ETS 300 121 ETS 300 008	International interexchange interface

를 주도할 PSO를 선정하여 LPSO(Lead PSO)로 명명하고 특정 주제분야에 있어서는 선정된 주도적 PSO인 LPSO가 주도케 하여 제한된 표준화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외에도 관심있는 많은 기고문을 찾을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고문들은 GSC의 홈페이지(<http://www.gsc.etsi.fr/>)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나. 주요 결정내용 및 논의사항

GSC에서 참여 표준화기구들의 집중적인 협력이 필요한 표준화 핵심 관심주제(HIS)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다. 이번 4차 GSC회의에서는 이렇게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해놓은 핵심 관심주제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 선정하였던 B-ISDN, IN/WIN, TMN, Mobility, Multimedia의 다섯 주제 가운데 Multimedia를 제외하고 대신 IP/Telecommunications Internetworking을 새로이 추가하여 B-ISDN, IN/WIN, TMN, Mobility, IP/Telecommunications Internetworking으로 핵심 관심주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우선 Multimedia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DAVIC, MPEC과 같이 특정한 분야로 국한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협력과 논의가 어렵다는 점과 근자에 들어 IP/Telecommunications Internetwork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HIS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PSO들이 많은 관심과 활동을 기울인 분야로 Number Portability, IMT-2000를 들 수 있으며, 특히 IMT-2000의 논의와 관련하여는 그

시장의 규모가 막대한 중국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기타 분야로는 표준화 활동의 기본이 되는 문제로서 지적재산권(IPR) 문제와 효율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전자문서교환방안(EDH) 등도 함께 논의 되었다.

III. RAST(Radio Standardization)

본 장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비되는 전파통신분야의 주도적 지역 참여표준화기구(PSO)의 비공식 협의체인 RAST에 대해 그 설립목적, 참여기구, 성립과정, GSC 및 RAG과의 관계, 개최연혁, 주요의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RAST의 설립목적 및 연혁

기본적으로 RAST는 GSC의 설립목적인 범세계적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의 협력 및 의견조율을 통한 표준 제·개정 의 적시화와 표준화 활동 촉진이라는 GSC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설립된 협의체로서 다만 그 대상 분야에 있어 전파통신분야에 집중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RAST가 처음부터 GSC와 별도로 설립운영된 것은 아니고 GSC의 전신인 ITSC의 한 분야로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4년 GSC로부터의 독립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게 되는 데, 이렇게 RAST가 GSC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1) GSC의 한 하부 주제로 포함되기에는 전파분야가 이질적이므로 전파표준화 전문가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2) GSC의 참여자격은 PSO로 제한되어 고정, 폐쇄적이었으므로 다양한 기술



이 등장하고 있는 무선분야에서는 참가자격을 좀더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3) 전파분야의 기술발전은 GSC의 주제분야에 비해 빠르므로 이러한 기술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는 GSC회의의 주기인 1년 반보다는 좀더 빈번한 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GSC로부터 독립한 RAST에는 현재 GSC 참여하고 있는 8개 PSO(ITU, ATSC, ETSI, T1, TIA, TSACC, TTA, TTC)외에도 일본 ARIB(Asso.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전파통신분야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 및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RAST가 GSC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 협의체로서의 활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GSC와의 협력하고 있는 데, 이러한 협력 및 공조의 방안으로 1) 가능한 동일한 시기에 개최하여 참가 PSO의 부담을 줄이고, 2) 공동 관심영역은 동일 세션에서 발표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며, 3) GSC 참석자에게도 RAST회의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4) 사무국 등의 행정지원 자원은 GSC와 공동 활용하고 각종 양식을 공유하며, 5) RAST 회의의 결과를 GSC 회의에 보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한편 RAST와 ITU-R의 자문기구인 RAG과의 관계는 ITU-T TSAG과 GSC의 관계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개최연혁 및 주요의제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 개최되어온 RAST

회의의 개최 연혁과 주요의제 및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RAST 회의는 다음과 같이 6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통상 GSC 회의가 1회 개최될 때 2회 개최되는 비율로 개최되고 있다.

- RAST - 1 니스(94. 10) - TTA 불참
- RAST - 2 오타와(95. 6) - 10개 기구 참여
- RAST - 3 제네바(96. 1)
- RAST - 4 경주(96. 9)
- RAST - 5 제네바(97. 6)
- RAST - 6 앙티폴리(98. 3)

RAST 회의의 주요기능은 GSC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주제분야가 상이한 것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주요의제 및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협력분야의 선정
- 핵심관심분야 (HIA: High Interest Areas) 의 검토 및 승인
- 협력활동의 보고, 평가 및 필요권고 제시
- EDH, IPR과 HIA(High Interest Areas)를 포함한 협력절차의 관리
- RAST 활동 결과의 반영을 위한 ITU 관계증진 및 지원

3. RAST 6차 회의의 주요 결과

6차 RAST회의에서 발표된 기고문의 수는 총 35편으로서 앞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5차 회의 이후에 각 PSO들의 주요 표준화 활동성과와 핵심관심분야 활동내용을 정리보고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고문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EMC(6편), ITS(6편), 무선 LAN(2편), MSS(4편), WLL(5편)등의 주

제가 주요 관심영역임을 발표된 기고문의 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한국통신에서는 TTA명의로 WLL과 ITS 분야의 기고문 각 1편을 발표하였다.

이번 6차 RAST 회의의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WLL을 FWA(Fixed Wireless Access)로 개칭키로 결정한 것과 기존의 핵심 관심주제(HIA)인 무선 LAN, MSS, WLL, EMC, ITS, Radio Aspects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Internet Protocol over Wireless Media, Digital Broadcasting의 두 주제를 추가하여 HIA를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 회기에서 최종결정키로 한 것 들 수 있다.

이외에도 EDH 분야에서는 E-amil Reflector의 구축 추진 등이, IPR에 분야에서는 RAST의 중립적 입장 견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IV. 결론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SC와 RAST는 정보통신분야 표준화를 위한 ITU 활동을 좀더 효율화시키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로서 비교적 최근인 90년대 초에 성립되었고 모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정보통신분야의 핵심 표준화기구들이 참여하여 주요 표준화분야에서의 상호 의견교환 및 조율을 통해 향후 ITU에서의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적 표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에 양 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고를 통해 소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표준화 협력활동이 전반적인 표준화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

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본 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이들 표준화 협력활동이 기존의 표준화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양한 계위의 표준화기구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들은 기본적인 표준화 작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범 세계적인 표준화 활동의 조정 관리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재지역별 국가 표준화기구들이 참여하는 지역표준화기구들이나 개별국가의 표준화기구들은 범 세계적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자국이나 소재지역의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 각종의 포럼 및 콘소시아는 개별 전문분야에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시성있고 효율성있는 표준개발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각종 표준화 포럼 등 민간기구에서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표준을 개발한 후, 이를 지역 및 국가표준화기구들이 참여하는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승인받고 지역/국가 표준화기구들은 이를 보급하는 구도로 표준화 활동이 정착되어갈 것이다.

한편 이러한 표준화활동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및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하여 보도록 한다.

- 1) 연구개발활동에 있어 표준화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과제는 항상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기존의 표준을 반영하고 새로운 표준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세부 개별 표준화 활동은 민간주도로 진행될 것을 인식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전문분야의 표준 개발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주도할 것임을 인식하고 ITU 이외에도 각 해당 기관별 전문분야에서의 다양한 민간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가 표준화 기구의 기능은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3) 표준화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 및 구조의 유연화를 이루어야 한다.
- 4) 이외에도 표준화의 장기적인 방향성 제시, 국제적인 표준전문가 양성을 통한 협상력의 제고,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의 위상 제고,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강화 등도 표준화 활동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와 관련된 비공식 협의체인 GSC/RAST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들 비공식 협력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주요 표준화과제 및 그 동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제 및 동향의 파악을 통해 해당기관의 연구 및 과제의 방향성 정립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기관과 해당 국가의 이해를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들 기구를 통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기대효과 이외에도 양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참석자들이 참여 표준화기구의 의장이나 대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SG 의장 진출 등 국제 표준화 무대로의 진출시에도 활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양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논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한 층 더 강화시키고 효율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Habara, Hohei. "Cooperation in Standardization,"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1994. 1) pp.78-84.
2. 김기수 등. 세계 정보통신 표준협력활동의 최근동향 TTA저널 (1998. 6)
3. 장명국.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TTA저널 (1997. 8)
4. 장명국. "세계 정보통신표준협력활동 (GAS/RAST)의 최근동향 및 향후전망." 제1회 정보·통신 표준화 심포지움, 1998.
5. GSC Home Page(<http://www.gsc.etsi.fr/>)
6. RAST Home Page(<http://www.rast.etsi.fr/>)

